

1월30일(월)/약1:1

제목: 머슴의 철학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절)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종이라는 칭호에 항상 ‘사도’ 라는 말을 추가했지만 야고보는 그냥 ‘종’ 이란 칭호 외에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이다(1절). 즉, 전 세계에 흠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확신했다. 종을 한국말로 하면 머슴이다. 머슴은 어떤 자인가? 머슴은 생각이 없어야 되는 자이다. 머슴은 머리를 써서는 안되는 자이다. 머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도 주인이 다른 일을 시키면 군소리 없이 그 일을 묵묵히 해야만 하는 자이다. 머슴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내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에도 아무 불만없이 싱글벙글 웃어야만 되는 자이다. 머슴은 미래의 포부나 계획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언제 이 머슴살이에서 해방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는 머슴의 자격이 없다. 머슴이 자신의 철학, 신조, 소신을 가지는 순간부터 머슴 자격은 박탈된다. 머슴은 주인이 입혀주는 데로, 먹여주는 데로, 재워주는 데로 군소리 없이 사는 자이다.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안주시냐고’ 예수님에게 군소리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머슴이 아닌 것이다.

1월31일(화)/약1:2~4

제목: 장래가 있는 선수는 훈련량이 많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라고 말하면서 인생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그 시련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3~4절). 하나님은 종종 자기 자식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신다. 우리 앞에는 종종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들,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해결될 일들, 인기가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될 일들, 핑크빛 욕망과 욕정들, 예기치 않는 불행들이 있다. 이것은 운동 선수가 감당해야 할 훈련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코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훈련량을 주신다. 코치가 훈련량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선수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이다. 장래가 있는 선수는 이 훈련들을 충실히 소화해 낸다. 그리고 마침내 본선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그것을 야고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로 표현하였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이 닥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라는 증거이다.

2월1일(수)/약1:5~8

제목: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5절). 여기서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지식을 다 총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정말 필요하고 요긴하고 꼭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나? 의심없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6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8절).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불신이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자는 안된다(7절). 그 마음에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는 못 받는다.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다시 흔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관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관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은 주셔도 보통으로 주시지 않는다. ‘후히’ 주신다(5절). 하나님은 절대로 타산적으로 주시지 않는다. 줄 때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므로 일관된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흘러넘치도록 받는다. 마치 파이프 관으로 하늘을 직접 뚫어버린 것처럼.... 일관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뚫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요긴하고 필요한 ‘지혜’가 활활활활 하고 쏟아진다. 믿음의 기도는 파이프 관으로 하늘을 뚫어버리는 것과 같다.

2월2일(목)/약1:9~11

제목: 사람 차별안하는 기독교

기독교는 가난한 자가 자기도 가치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었다(9절). 초대교회 안에는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이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귀와 사랑을 받는 한 형제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는 부자가 자기는 안전하고 안심할 자가 못 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9절). 초대교회는 사막에 열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풀의 꽃이 다 타버리듯이 사람도 인생의 광풍이 한번 불면 그 부(副)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10~11절). 기독교는 이와 같이 인간차별을 종식시켰다.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도 대단하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사람의 차별을 없었다.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떡과 잔을 먹었다. 선교사들은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남녀구분을 타파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힘없는 사람들, 여자, 노인, 어린이, 고아, 장애인들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 이 세상에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2월3일(금)/약1:12~18 (1)

제목: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야고보는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12절).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였다(13절). 야고보는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14절). 사람이 욕심이 커지면 결국 죄지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결국 죽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15절).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다는 그릇된 사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16절). 예수 믿어도 욕망은 존재한다. 예수 믿어도 돈, 고급승용차, 고급아파트,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인기, 찬사, 명예를 싫어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매일 Q.T 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이 욕망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 밖에 없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해야 한다. 이 방법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